

# 브래들리 워커 톰린(Bradley Walker Tomlin)의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 번 아웃(Burn-out) 기법을 중심으로 -

박지혜\* · 김정혜

University of Leeds PhD\*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회화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를 제시하고 올 번 아웃 기법을 응용한 새로운 패션 소재를 연구하여 사용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대함에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전문서적의 문헌 고찰, 간행물, 선행 연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추상표현주의와 번 아웃 기법을 조사하고, 기존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현대 패션의 응용 사례를 고찰했다. 자료는 수록된 자료의 수와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진 인터넷 패션 전문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올 번 아웃 가공의 고찰을 위해 선행 연구된 자료와 실험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약품과 조제 비율, 농도, 탄화 온도를 결정했다. 펠트 니들 펀치 기법은 회화의 색감과 붓 터치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물 작품의상 4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에서 추상표현주의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독창적 디자인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표현 기법으로는 용해제를 묘염기법으로 그려 탄화시키는 올 번 아웃 기법과 펠트 니들 펀치 기법의 부분적 사용으로 브래들리 워커 톰린 회화의 회화적인 붓 터치 이미지 표현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톰린 회화에 표현된 조형적 특징을 의상에 표현하기 위해 올 번 아웃 기법과, 부분적으로 펠트 니들 펀치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넓힐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추상 표현, 번 아웃 기법, 패션 표현 기법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박지혜, [designparkjihye@gmail.com](mailto:designparkjihye@gmail.com)

접수일: 2022년 8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22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5일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 패션은 고유의 자기분야 외에 다른 장르와의 교류와 협업으로 표현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이 시도되어 패션에서 얻는 심리적, 상징적 만족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패션은 회화와 조각, 건축, 미디어 아트 등 다른 예술분야의 개념과 기법, 스타일 등 미학적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미학적 특성을 디자인에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펠트, 자수, 실크 프린팅, 디지털 프린팅, 염색 기법, 패치워크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은 심미적 가치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원천이 되므로 디자이너에게 다양한 표현과 색다른 발상을 제공한다. 또한 Kim and Choi(2007)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섬유 제품들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강조되기 때문에, 섬유 가공의 중요성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올 번 아웃(burn-out) 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통해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패션을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새로운 표현 기법으로 디자인에 구현하여 미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추상표현주의 회화적 특징을 현대 패션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현대인들의 패션에 대한 미적 감성을 충족시키고, 패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작품 제작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소개하고 추상표현주의 작가 브래들리 워커 톰린(Bradley Walker

Tomlin)의 작품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추상표현주의의 기법적 특징을 현대 패션에 활용한 사례를 기법 별로 나누어 추상표현을 응용한 디자이너의 의상 사례를 찾아 알아보았다.

둘째, 번 아웃 기법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서 번 아웃 기법의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브래들리 워커 톰린의 회화를 모티프로 응용하여 패션 텍스타일을 제작하여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번 아웃 기법을 주 기법으로 사용하였고, 회화적인 붓 터치와 자연스러운 색채 표현을 위해 니들 펠트 기법을 부가하여 다채로운 표현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하였다. 제작한 패션디자인 작품은 총 4착장으로, 회화의 느낌을 살리고 모티프와 표현 기법을 강조하기 위해 심플하고 간결한 실루엣으로 제작하였다.

#### 1) 추상회화에 관한 고찰

추상표현주의는 1929년 미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던 러시아의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초기 작품의 자유분방한 형상에 대해 미술평론가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 Jr.)가 ‘형식적으로는 추상이지만 내용은 표현적’이라고 언급한 데 유래를 두고 있다. 1945년 「뉴욕거지」의 로버트 코츠(Robert Coates)기자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작품에 이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추상적인 것과 표현주의적인 것의 중합을 단순화시켜 추상표현주의자로 거론되는 작가들을 지칭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럽 회화의 전통과 대비하여 ‘미국형 회화’ 또는 ‘뉴욕화파’로, 본질적 특성을 살려 ‘액션 페인팅’이라 부르기도 한다(Harrison, 1981).

추상표현주의는 자연의 재현이 아닌 작가의 내면세계를 중시하는 추상형태나 무의식의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결과를 존중하는 현대 미술의 변화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예술 활동의 중심 무대인 유럽을 떠나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직관적인 표현 행위를 예술로서 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상표현주의는 회화에 있어서 무의식성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Automatism)에서 강한 암시를 받았으며 전쟁 전의 현대 미술사에 등장한 다양한 경향을 종합시켜 유럽에 종속적으로 이끌려오던 미국의 현대 미술을 독자적으로 분리시켰으며 현대 미술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미술은 독자적인 표현을 획득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근대 미술의 역사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Caldwell et al, 1980).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표현 기법은 액션페인팅과 색면추상(Color Field Abstract)을 통틀어 유형화하면 드리핑(Dripping), 타시즘(Tachisme), 서체추상(Calligraphy Abstract), 색면추상 기법들로 나누어 분류한다(Kim, 2009; Lee, 2013). 그러나 다양한 미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면을 지니고 있어 명쾌한 분류 작업은 어렵다. 또한 추상표현주의는 보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그만큼 자의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갈래보다는 큰 기법적 특징으로 분류해, 브래들리 워커 톰린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알아보고

자 한다.

(1) 브래들리 워커 톰린 회화에 관한 고찰

브래들리 워커 톰린은 자신만의 화법을 통해 즉흥적인 자유와 계획적인 통제 사이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추구하였다. 액션페인팅적인 행위적 추상과 색면추상을 다소 절충하여 표현한 작가로 자신의 내면적 자아의 탐구로부터 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무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동양의 서예와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활용했다(Breuer et al, 2000).

그의 표현 방법은 당시 폴록의 드립페인팅이나 프란츠 클라인의 격정적이고 광선 같은 붓질과 달리 물감을 칠하는 방법이 좀 더 계획적이었다. 이는 톰린의 동료인 필립 거스턴(Philip Guston)이 “톰린의 기질은 통제와 자유롭기를 동시에 추구하는 달성 불가능한 즐거움을 고집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Crum et al, 1989). 그의 회화에서 선적인 구조는 흐트러진 격자를 합침으로써 곡선의 무늬들로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Number 20』(Figure 1)에 나타난 무늬들은 문자나 숫자 혹은 작고 다양한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문양을 주축으로 호면 가득 표현하였다(Anfam, 1990). 곧이어 그가 새로 발견한 미적 자유에 의혹을 품고 『Number 9』(Figure 2)와 같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서체와 인체체 모양들이 캔버스의 전체 면에서 유동적이면서도 통제된



Figure 1. Number 20, 1949.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20". (n.d.). <https://www.moma.org>



Figure 2. Number 9, 1950.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9: In Praise of Gertrude Stein". (n.d.). <https://www.phillipscollection.org>  
<https://www.moma.org>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 후로 3년 동안 계속 이 양식을 약간씩 변형시켜 다양한 그림을 그렸으며, 그의 생애 후기 작품에는 색면추상을 반영한 색채 이미지 전달을 통해 독특한 애수를 불어넣었다. 톰린의 제스처 회화는 수동적이고 우아한 것을 조절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톰린의 회화는 선적인 요소인 타시즘과 서체추상, 면적 요소인 색면추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톰린 회화의 특징을 기법을 따라 정리하여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Table 1).

첫째, 타시즘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타시즘은 얼룩 또는 오점이라는 뜻의 ‘타슈(Tache)’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규칙한 색, 점과 얼룩들로 표현된 회화를 일컫는다(미술대사전, 1998). 이러한 방법은 불규칙적으로 대비되는 선이 구현되어 계획적인 구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정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피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균

형이 잡힌 조형적 구성을 창출했다. 이러한 톰린 회화의 표현은 타시즘 기법을 사용한 다른 화가들과 다르게 절제된 감성으로 색채의 두꺼운 중첩 효과로 화면의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득 메워 구성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다(Figure 3).

둘째, 서체추상을 활용했다. 서체추상 기법은 서예의 한자 서체를 닮은 회화를 가리킨다(Crum et al., 1989). 톰린의 회화에 나타난 서체추상 기법은 계획적으로 절제하여 구성한 서체추상으로 화면 위에 선을 표현하지만 여백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선으로 화면을 가득 채워 균형을 이루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Figure 4>에 나타난 브래들리 워커 톰린 회화의 선은 속도감이 느껴지는 자유로우면서도 균형 잡힌 붓 터치로 조형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톰린의 회화에는 색면추상적인 기법이 나타난다(Oh, 1991). 색면추상은 추상표현주의 회화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Bradley Walker Tomlin's paintings.

구분	기법	대표 사례	특성
선	타시즘 기법	 Figure 3. Number 15, 1953.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15". (n.d). <a href="https://www.moma.org">https://www.moma.org</a>	불규칙적으로 대비되는 선이 계획적인 구성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균형이 잡힌 조형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서체추상 기법	 Figure 4. Number 2, 1950.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2". (n.d). <a href="http://www.wikipaintings.org">http://www.wikipaintings.org</a>	화면 위에 속도감 있는 선을 표현하지만 여백을 강조하지 않고 화면을 가득 채워 균형을 이루는 특성을 지닌다.
면	색면추상 기법	 Figure 5. Number 1, 1952.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1". (n.d). <a href="http://www.wikipaintings.org">http://www.wikipaintings.org</a>	붓 자국이 선명하여 단위로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고, 이러한 반복적인 색면은 색채의 큰 이미지를 표현했다.

가 유럽으로부터 즉흥적 미술과 구별 지을 수 있는 기법으로 강하고 한결같은 색채에 의해 막막한 색면을 묘사하고 잠재적이면서도 외부로 확산하는 힘을 표현한다(Shim, 1996). 톰린 회화에 나타난 면의 특성은 겹겹이 쌓인 색채의 터치와 같은 색의 납작한 장방형들로 구성된 색면추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Figure 5). 이러한 방법은 단순화된 화면에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여 색채의 힘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붓 자국이 선명하며 단위 단위로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고, 붓 자국들의 색면을 중첩시킴으로써 색채의 큰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점은 다른 색면추상 기법을 사용한 화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톰린 회화의 조형적 특성은 속도감 있는 선의 표현, 자유로우면서 균형 잡힌 붓 터치 및 반복적인 색면 구성이다. 이러한 다양한 선과 색면의 활용으로 표현된 조형적 특징은 기존의 추상회화를 응용한 패션디자인과 차별화하고, 표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추상표현주의 회화

패션은 예술의 의미 변화에 따라 ‘의복의 창조는 감정과 심상을 전달하는 예술 표현의 한 형태’라고 하는 조형 예술로서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술 분야의 장르들은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의상 디자인 또한 전통적인 표현 형식과 내용에서 벗어나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 방식으로 예술적 표현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Kim, 1998).

현대 패션에서 주로 붓 터치로 나타나는 문양은 추상표현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실루엣의 형태는 단순하게 하여 문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회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장식적인 디테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응용한 현대 패션은 그들의 회화에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 기법을 직·간접적으

로 응용하고 있으므로 색채의 사용도 매우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다. 유채색의 경우 다양한 색채가 고르게 사용되며 무채색의 경우에도 흰색과 검정색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회화의 기법을 문양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패션이 주로 나타나므로 색채의 사용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패션에서는 원색적이고 화려한 표현을 할 때 회화만큼 색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는 고채도의 선명하고 강렬한 색상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회화가 색상의 혼합을 통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색채를 표현하는 반면, 패션에서는 좀 더 현대적인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인의 감각에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처럼, 추상표현주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회화들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소재의 독창적인 개발에 영감을 제공한다. 현대 패션에 활용된 추상표현주의를 표현 기법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① 드리핑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드리핑 기법에 의한 회화는 물감을 흘리거나 뿌려 화면에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비정형적인 선으로 화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화는 드리핑이라는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행해지지만 같은 화가의 작품들이라도 동일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드리핑 기법을 활용해 화폭에 그려진 선은 독창적이며 유일하다.

잭슨 폴록의 1948년 작 『No.19』(Figure 6)는 검정색과 흰색의 물감을 드리핑 기법으로 작업함으로써 자유롭고 역동적인 선들을 구성하고 있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드리핑 기법에 영감을 받아 회화의 느낌을 단순한 실루엣의 재킷 위에 흰 물감으로 드리핑한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Figure 7). 2007년 디올 남성복(Dior Homme) 역시 드리핑을 응용한 재킷을 선보였다(Figure 8). 또한 드리핑 기법은 화면의 상, 하, 좌, 우 구분 없



Figure 6. No.19, 1948.  
From Jackson Pollock "No.19".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ure 7. Jacket.  
From Jean Paul Gaultier vintage 'pollock' bleached jacket. (n.d.).  
<https://www.pinterest.co.kr>



Figure 8. Dior Homme Fall 2007 Reprinted.  
From Steff Yotka.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9. NO.8, 1949.  
From Jackson Pollock "NO.8".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ure 10. Christian Lacroix 2002 S/S.  
From Christian Lacroix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s://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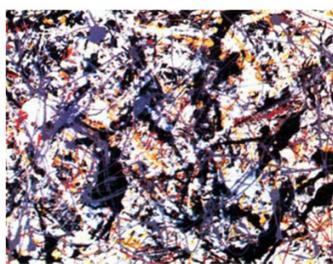


Figure 11. Peinture, 1948.  
From Jackson Pollock "Peinture (Argent sur noir, blanc, jaune et rouge)". (n.d.).  
<https://panoramadelart.com>



Figure 12. Comme des Garçons.  
From Comme des Garçons spring 2004 ready to wear. (n.d.).  
<https://www.vogue.com>  
<https://www.vogue.com>

이 화면 전체가 균등한 전면회화(All Over Painting)이다. 디자이너들은 드리핑 회화를 응용할 때 어느 한 부분을 모티프로 착안하여 패션에 접목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흑백의 단순한 색채를 이용하여 드리핑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이 많지만, 1949년 폴록의 그림(Figure 9)을 응용한 크리스찬 라크루와(Christian Lacroix)의 2002년 봄·여름 컬렉션(Figure 10)이나, 1948년 폴록 회화(Figure 11)를 응용한 쵸 테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2004년 봄·여름 컬렉션(Figure 12)처럼 색채를 이용한 드리핑도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드리핑 기법은 특수한 훈련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핑 기법을 사용한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디자이너가 패션

에 직접 표현하기도 한다(Figure 13), (Figure 14).

## ② 타시즘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타시즘은 얼룩, 오점이라는 뜻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불규칙한 색, 점과 얼룩들로 표현된 회화를 일컫는다. 드리핑 기법의 순간적이고 방임적인 우연에 비하면 비교적 절제된 감정을 통한 통제된 우연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 화가인 샘 프란시스(Sam Francis)는 수용성 물감과 침윤성 있는 종이를 사용하여 물감의 얼룩지고 번지는 수법에 의해 우연의 효과를 표현했다(Figure 15). 이러한 느낌을 톰 반 링엔(Tom Van Lingen)은 2003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Figure 16).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 2018년 봄·여름 컬렉션의 디자인(Figure 17)에서는 프란시스



Figure 13. Raf Simons x Sterling Ruby Fall 2014.  
From Steff Yotka.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14. Maison Margiela's popular "Pollock" sneakers.  
From Steff Yotka.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15. Untitled, 1958.  
From Sam Francis "Untitled".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ure 16. Tom Van Lingen spring/summer 2003.  
From Tom Van Linge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스의 회화(Figure 18) 중 물감이 화면을 흘러내리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우연을 프린트로 응용했다. 타시즘 기법의 프린트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2008년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봄·여름 컬렉션(Figure 19)과 2011년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의 컬렉션(Figure 2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1999년 봄·여름 컬렉션의 퍼포먼스는 즉흥적인 타시즘을 이용해 의상(Figure 21)을 완성했다.

### ③ 서체추상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서체추상 기법은 정신을 집중하여 일필휘지로 써 내려간 동양의 서체와 닮은 회화를 가리킨다. 프

란츠 클라인(Franz Kline)의 작품(Figure 22)에서 서체추상은 보통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 효과를 이용해 마치 동양의 서체를 일부 확대하여 표현한 듯하다.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의 2002년 봄·여름 컬렉션(Figure 23)은 서체추상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터치로 프린트하여 디자인을 전개했다. 그 외에도 2000년 가을·겨울 로에베(Loewe) 컬렉션(Figure 24), 2004년 가을·겨울 펜디(Fendi) 컬렉션의 원피스 디자인(Figure 25), 2008년 가을·겨울 드리스 반 노튼의 큰 붓 터치 이미지의 원피스(Figure 26), 2009년 가을·겨울 자일스(Giles)의 주황색 서체추상 기법을 이용한 원피스(Figure 27)등에서 디자이너의 응용 예를 찾아볼 수 있다.



Figure 17. Oscar de la Renta 2018 S/S.  
From Oscar de la Renta. (n.d.).  
<https://www.oscardelarenta.com>



Figure 18. Foot Print, 1960.  
From Sam Francis "Foot Print".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ure 19. Dolce & Gabbana.  
From Dolce Gabbana - Ready-to-Wear - Runway Details - Wom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20. Dries Van Noten 2011 S/S.  
From Dries Van Note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Men. (n.d.).  
<https://www.vogue.com>



Figure 21. Alexander McQueen.  
From Steff Yotka. (2015).  
<https://www.vogue.com>



Figure 22. New York, 1953.  
From Franz Kline "New York".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ure 23. Michael Kors 2002 S/S.  
From Michael Kors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Figure 24. Loewe 2000 F/W.  
From Loewe Fall 2000 Ready-to-Wear Fashion Show. (n.d.).  
<https://www.vogue.com>



Figure 25. Fendi 2004 F/W.  
From Fendi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Figure 26. Dries Van Noten 2008 F/W.  
From Dolce Gabbana - Ready-to-Wear - Runway Details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Figure 27. Giles 2009 F/W.  
From Giles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 ④ 색면추상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색면추상은 우연성이 개입된 위의 세 가지 유형과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 작가의 내면세계 표출에 중점을 두어 직관에 의한 우연성보다는 색면을 통한 송고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색면추상 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원단의 직조나 배색, 직물 염색을 응용한 디자인이 보인다.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회화(Figure 28) 이미지가 2008년 봄·여름 알렉산더 맥퀸의 의상(Figure 29)과 2008년 가을·겨울 라프 시몬스(Raf simons) 남성복 컬렉션의 스웨터(Figure 30)에서 느껴진다. 2009년 가을·겨울 매튜 윌리엄슨(Matthew Williamson)의 코트 디자인(Figure 31)에는 원단의 직조에 색채의 경계를 번짐의 효과로 표현한 색면추상 기법이 나타난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예술 양식을 이용한 패션과 텍스타일 디자인의 전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Lee(2013)는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표한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텍스타일 프린팅과 염색, 색채의 소재 이용, 니트의 컬러 조각(block)으로 응용한 방법, 소재의 질감으로 표현한 방법,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이나 재료를 활용한 표면 장식으로 총 다섯 가지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최근 조형적 특성과 담고 있는 내적 의미를 미적 가치로 해석한 디자인 작품이 독창적으로 구현되고,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추상표현주의 기법이 현대 패션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추상표현주의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Kim, 2009)를 살펴보면, 프린팅, 직조, 염색 등 한정적 소재 기법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



Figure 28. No. 14, 1960.  
From Mark Rothko "No. 14".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ure 29. Alexander McQueen 2008 S/S.  
From Alexander McQuee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Figure 30. Raf simons 2008 F/W.  
From Raf Simons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Men. (n.d.).  
<http://www.firstview.com>



Figure 31. Matthew Williamson 2009 F/W.  
From Matthew Williamso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www.firstview.com>

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창작 영역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II. 기법에 관한 고찰

### 1. 번 아웃 기법의 개념

번 아웃 기법이란 약품에 대한 용해성이 섬유에 따라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내약품성의 차를 이용하여 혼방 혹은 교직물의 한쪽 섬유를 약품으로 녹이는 가공을 말하며 탄화, 발식, 오팔 가공(opal printing)이라고도 불린다(Lee & Yang, 1999). 번 아웃은 탄화 되는 구성 성분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나 적용되는 약품이 달라진다.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직물의 구성 섬유 중 한 가지를 녹여 직물 상에 레이스나 자수 형태의 독특한 입체 문양 효과와 색상을 얻을 수 있다(Kim, 1999). 또한 섬유 혼용률, 조직 염색 등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디자인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가공 방식이나 제작기법, 천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물리적 특성이나 직조된 방법에 따라 교직, 교편한 직물, 편물뿐만 아니라 기모나 파일

직물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Kim & Cho, 2005) 다양한 미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올 번 아웃에 사용되는 가성소다액은 1884년 영국 존 머서(J. Mercer)가 “면의 머서화(mercerization)”를 발견하면서 섬유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번 아웃은 1940~1950년대에 개발되었으나, 1970년경 영국에서 폴리에스터와 면의 혼방 직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성행하기 시작했다(Kim, 1999). 근래에 패션디자인의 소재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가의 고급직물로 생산되면서 다시 이 가공법이 성행하고 있다. 날염 공정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심미성을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단 표면에 약품 처리하여 입체적인 무늬 효과를 나타내는 번 아웃 가공법이 원단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다(Cho et al., 2014). 국내에서는 1960년대 초반부터 가공기술이 도입되어 오팔 가공이라는 용어를 변형시킨 ‘오빠루’라는 상품명으로 양장 원단에서 한복 원단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고, 세계 패션의 경향에 따라 다시 성행하고 있다(Yun, 2004).

### 2. 번 아웃 기법의 종류 및 특성

섬유를 크게 우리나라 산업 규격(KS KO904) 기

준으로 분류하면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나뉘고, 천연 섬유는 식물에서 얻은 섬유와 동물에서 얻은 섬유가 있다(Shim & Kim, 2004).

### 1) 식물성 섬유 번 아웃

천연 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섬유인 식물성 섬유는 다당류중의 하나인 셀룰로오스라고 하는 천연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이다. 면 섬유, 아마 섬유, 모시 섬유, 대마 섬유 등이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섬유들이다(Jung, 2010). 이런 셀룰로오스 섬유와 화학 섬유가 교직된 혼방 직물을 셀룰로오스 부분을 용해시킴으로써 자수문양을 나타낼 수 있고, 교직물의 경우 위사의 어느 한쪽 부분만 남게 되어 ‘Floating Thread’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섬유소가 무기산에 접촉되면 건조 과정에서 무기산이 침투되고 다시 가열에 의한 격렬한 산화 작용으로 긴 고분자 연결고리가 파괴, 회분 되어 부서져 나가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즉 셀룰로오스 섬유는 산에 약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탄화제로 예전에는 황산(sulfuric acid)같은 강산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알루미늄산(aluminum sulphate)이나 하이드로(sodium hydrosulphite)같은 잠재성 산 발생 염을 사용한다. 이때 직물의 표면에 부과하는 호료의 농도, 탄화제의 농도, 건조 상태, 가열 시간, 가열 온도에 따라 번 아웃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2) 동물성 섬유 번 아웃

동물성 섬유에는 양과 같은 동물의 털을 이용하는 울 섬유와 누에고치에서 얻는 견 섬유가 있다. 이러한 동물성 섬유의 주성분은 단백질로 아미노산이 기본성분이다. 다양한 아미노산이 축합된 폴리펩티드 형태로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은 시스틴 가교결합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가교결합의 존재는 울로 하여금 3차원적인 구조를 이루어 수소결합을 절단할 수 있는 일반 용매에는

녹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지만 강알칼리인 가성소다(NaOH)는 울을 녹일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모와 합성섬유가 섞인 섬유에서 울 부분만을 제거한다. 울을 번 아웃시키는 방법으로 첫째, 동물성 섬유무게의 30에서 50배 정도 물을 넣고 끓이다가 40℃의 온도가 되면 가성소다를 0.5% 비율로 넣고 용해시킨 후, 번 아웃되지 않은 부분은 용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시켜 30분간 끓인 후 수세, 탈수, 건조를 한다. 이 방법은 훌치 기염과 비슷한 효과로 자신이 원하는 세밀하고 계획적인 것을 표현하기는 어렵다(Yun, 2004). 둘째, 동물성 섬유 위에 직접 묘염 기법과 같이 원하는 밑그림에 따라 붓으로 탄화시킬 부분을 그려 넣고 말린 후 다리미로 태워 수세, 탈수, 건조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번 아웃에서 의도하는 점을 계획한대로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 3. 울 번 아웃 기법의 특징 및 가공 과정

섬유소재의 개발에 있어서 섬유가공은 기존 원단의 기능과 색상, 디자인 등의 심미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패션 상품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주요 핵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공이란 기계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섬유 제품의 시각적 또는 촉각적 느낌을 변화시켜 제품가치를 높이는 공정으로 본 연구의 울 번 아웃은 심미성 가공의 대표적인 예이다. 울 번 아웃은 울의 부드러운 부분과 탄화되지 않은 합성섬유의 표면적 질감의 특성 차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울 섬유는 보온성과 흡수성이 매우 우수하나 스케일에 의한 축융과 알칼리에 약한 성질을 갖고 있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의 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섬유로 황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울 번 아웃은 다림질 온도가 150℃를 필요로 하므로 가소성이 크다.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는 천연 섬유

중 가장 약하고, 권축의 발달로 함기성이 높아 보온성이 우수하다.

울 번 아웃 가공에 사용되는 일반적 약품은 강알칼리인 가성소다, 호료, 과건조 방지제, 침투제 등의 보조제가 사용된다. 가성소다는 수산화나트륨의 속칭으로 화학식은 NaOH이다. 가성은 부식성을 뜻하며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동물조직을 현저하게 침식시킨다. 가성소다에 날염성을 부여하기 위해 넣는 용액은 ‘인달카(Indalca Gum, Locust bean Gum)’라 불리는 호료이다. 호료는 유도체로서 날염 풀이라고도 불리며 날염무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염료를 섞는 매개체로 염착성과 견뢰도를 높인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용이해진다(Song, 1996). 울 번 아웃 용액을 만들 때 가성소다와 호료, 물을 넣게 되는데 이때의 비율은 10:50:40이 적합하다는 선행연구(Shim & Kim, 2004)가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의 결과, 울 원단의 특성에 따라 가성소다의 비율이 높아 원단이 뚫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원하는 표현을 위해 날염의 방법으로 붓 터치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물의 비율이 높아 원하는 붓 터치의 모양보다 번지는 현상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울 원단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의 특성에 따라 비율 10:60:30의 가성소다, 호료, 물로 표현하는 것이 본 연구자가 원하는 표현을 하는데 적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울 원단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울 번 아웃 용액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울 번 아웃에서 탄화제만큼 중요한 것이 탄화처리 과정이다. 번 아웃 가공은 건조 후 열을 가해 탄화제가 섬유를 용해시키므로 사용하는 열처리 기구에 따라 발식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가 가 중요하다.

울 번 아웃을 제작하는 순서는 가성소다, 호료, 물을 원단과 표현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후 울에 원하는 패턴을 초크로 그린다. 배합해 놓

은 번 아웃 용액을 인조 털로 만들어진 붓으로 그리고 상온이나 드라이로 건조시킨다. 완전히 건조되면 150℃정도로 다림질하여 태우고 태운 부분을 문질러 제거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가성소다는 단백질을 녹이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으로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탄화할 때 탄화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 곳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세 시 지나치게 힘을 가하면 태운 부분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4. 번 아웃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1970년대 혼방물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많이 이용되었던 번 아웃 기법은 그 후로 소강 상태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번 아웃 소재가 성행한다. 1997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선보인 마틴 시تب(Matine Sitbon)의 벨벳 번 아웃 드레스(Figure 32)와 레이온이 함유된 섬유를 번 아웃 시켜 레이온 번 아웃의 깨끗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선보인다.

같은 해에 발렌티노(Valentino) 컬렉션(Figure 33)에서는 방모를 번 아웃 시켜 동물성 번 아웃을 활용해 소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최근의 번 아웃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을 살펴보면, 2011 Topshop unique 컬렉션의 풍경을 그려낸 벨벳 소재 번 아웃(Figure 34), 2020 가을·겨울 헬무트 랭(Helmut Lang)의 직선적인 패턴의 번 아웃(Figure 35), 2018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에서 자유로운 패턴 모양의 번 아웃(Figure 36)을 사용하여 다양한 양각 패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번 아웃 가공으로 우아한 패턴을 만들어 디자인한 드레스나 가운, 비치 웨어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패션에 사용되는 번 아웃 패턴의 디자인도 다양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상에 나타난 번 아웃 기법은 디자이너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잘 나타나며 점점 다양한 시도와 패턴 그림의 다양성, 소



Figure 32. MatineSitbon, 1997 F/W. From Belle. (2011). <http://cindyandbelle.blogspot.com>



Figure 33. Valentino 1997 F/W. From Valentino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https://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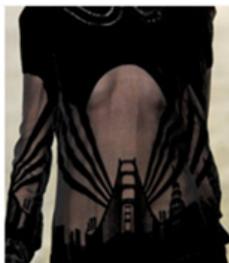


Figure 34. Topshop unique 2011. From Topshop Unique Fall 2011 | London Fashion Week. (2011). <http://www.fashiongonerogue.com>



Figure 35. Helmut Lang 2020 F/W. From Helmut Lang for Women FW20 Collection. (n.d.). <https://www.pinterest.co.kr>



Figure 36. Alexander Wang 2018. From Alexander Wang Tie Dye Wool-Blend Burnout Pullover in Egyptian Blue (n.d.). <https://www.pinterest.co.kr>

재의 이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동물성 섬유 번 아웃을 이용한 현대 패션의 사례가 식물성 섬유 번 아웃의 사례보다 현저히 적고 컬렉션에서 이용된 예가 거의 없어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 III. 작품 제작

#### 1. 제작 의도

본 연구는 추상표현회화 중 브래들리 위커 톰린 회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조사와 실험을 통해 얻어진 울 번 아웃 기법의 특성을 활용하여 패션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현대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브래들리 위커 톰린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로서 새로운 예술 사조와 회화 기법을 통해 독자성을 추구하였다. 그의 회화에 나타난 독특한 조형적 특성은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모티프가 되어 다양한 이미지로 응용될 수 있다.

작품의 표현 기법으로 번 아웃 가공 중 동물성 섬유 용해 기법인 울 번 아웃 가공법을 이용하였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니들 펠트로 회화적인 이

미지 표현을 풍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표현 기법들은 톰린 회화 속에 나타나는 붓 터치 특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하였고 회화적 터치의 느낌을 부여하는데 효과적이다.

전체적인 색채는 톰린의 회화에 사용된 색채를 그대로 이용하기 보다는 명도와 채도 차이를 활용하였다. 명도 차 효과는 모티프를 강하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즉 그림 속에 있는 특정 붓 터치의 특징을 강하게 보여 주교자 의도하였다. 추가적으로 펠트를 활용하여 회화에 사용된 색상의 특징을 나타냈다.

#### 2. 제작 방법

울을 번 아웃 가공할 때 울과 폴리에스터의 함유율에 따라 번 아웃의 효과와 원단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번 아웃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원단을 조사했고, 울이 함유된 혼방 원단이 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에 따라 동물성 번 아웃 가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재로 울이 함유된 혼방 원단을 선택하였다. 택한 원단은 가공 후 탄화 된 부분과 탄화 되지 않은 부분의 질감 대비로 나타내고자 하는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용이하였다.

붓 터치 느낌을 더욱 극대화하고 브래들리 워커 톰린 회화의 이미지와 회화에서 활용된 기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펠트 니들 펀치를 사용했다. 이때 전체적인 소재의 통일감을 표현하기 위해 펠트는 울 소재를 사용하였다.

디자인의 형태는 미니멀한 스타일로 회화의 느낌을 살리고 모티프와 표현 기법을 강조하기 위해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와 장식성을 배제하였다.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에 경직되지 않은 드레이퍼리한 유선형의 실루엣을 가미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작업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톰린의 회화 중 모티프가 된 이미지를 확대, 축소, 반복, 단순화시킴을 통해 디자인을 전개하고, 모티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단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이때 탄화할 부분을 잘 표시해두고 동물성 번 아웃 용해제를 조제하여 인조 모로 만들어진 붓을 이용해 잘 발라준다(Figure 37), (Figure 38). 용해제가 다 마를 때까지 건조하고, 다리미로 울에 적합한 온도에 맞춰 2분간 탄화하고 증화, 수세한다(Figure 39), (Figure 40). 울 번 아웃을 마친 후 모티프나 디자인 의도에 따라 펠트로 마무리

표현을 하고 비눗물로 축융 처리하여 말린다(Figure 41), (Figure 42).

### 3. 작품 설명

『Manuver for Position』(Figure 43)은 브래들리 워커 톰린의 1947년 작품으로 작품1(Table 2)의 모티프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의 원단 소재로 울 40%, 폴리에스터 60%가 함유된 혼방 원단을 선택하였고, 울 30%가 함유된 소재보다 번 아웃 가공 후 탄화된 부분에 투과성이 생겨 좀 더 확실한 대비를 보였다. 회화에서 도출한 모티프의 속도감이 느껴지는 즉흥적인 붓 터치 느낌이 부각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펠트 니들 펀치를 이용했다(Figure 44). 실루엣은 각이 크지 않은 유선형의 허리라인이 없는 U자형 드레스로 후드 디테일을 이용하여 경직되지 않은 자유로운 느낌을 살리고자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모티프 회화에 적용된 컬러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붓 터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한 펠트에 부분적으로 응용하였다. 번 아웃으로 탄화된 부분의 검정색과 원단의 본래 색상의 명도 차를 이용해 모티프의 선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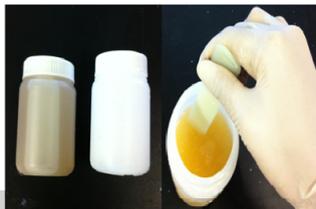


Figure 37.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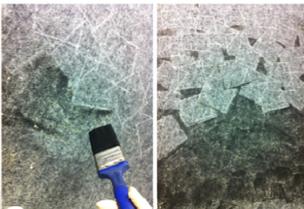


Figure 38.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Figure 39.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Figure 42.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Figure 41.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Figure 40.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조형성을 뚜렷이 나타내고자 했다. 톰린 회화의 과감한 붓 터치를 강조하여 그림 속 느낌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하였다(Figure 45).

브래들리 워커 톰린의 1950년 작품인 『Number 2』(Figure 46)에서 모티프를 응용하여 롱 코트를 제작하였다(Table 3). 작품의 원단 소재로 울 30%, 폴리에스터 70%가 함유된 혼방 원단을 선택하여 번 아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회화에서 도출한 모티프의 구성과 동적인 붓 터치로 그린 듯한 느낌이 부각될 수 있도록 펠트 니들 펀치를 이용하였다. 회화의 전반적인 느낌과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실루엣은 디테일 없이 심플하지만, 브래들리 워커 톰린이 속해있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공통된 특성인 화면의 대형화 경향을 응용하여 허리라인 없이 긴 기장으로 디자인하였다. 롱 코트의 색상은 모티프가 된 회화에 사용된 올리브 그린 컬러를 응용하였고, 번 아웃으로 탄화된 부

분의 검정색과의 명도 차 효과를 나타냈다. 본래 회화의 선적인 붓 터치는 흰색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어 부분적으로 흰색을 응용해 사용했다(Figure 47). 톰린 회화의 서체적 선의 기법과 붓 터치 하나 하나에 작가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하고자 했던 의도와 그만의 표현을 충분히 살리고자 하였다(Figure 48).

브래들리 워커 톰린의 1952년 작품인 『Number 1』(Figure 49)에서 모티프를 응용하여 비대칭 원피스 드레스를 제작하였다(Table 4). 작품의 원단 소재로 울 30%, 폴리에스터 70%가 함유된 혼방 원단을 선택하여 번 아웃으로 표현하였다. 이 디자인에서의 번 아웃은 원피스 드레스의 패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모티프 형태를 반복적으로 중첩시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각형이 커지는 방사형 팽창의 구성을 활용했다. 회화에서 도출한 모티프의 구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펠트 니들 펀치를 이용

Table 2. Design reflecting figurative features of Tomlin's painting.

작품 1		
모티프	소재개발	패션디자인 작품
		
Figure 43. Maneuver for Position, 1947. From Bradley Walker Tomlin "Maneuver for Position". (n.d.). <a href="http://www.wikipaintings.org">http://www.wikipaintings.org</a>	Figure 44. Image 1.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Figure 45. Design 1.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
구성:	후드 드레스	
소재:	울40%, 폴리에스터60%의 혼방소재	
색상:	Light Grey, Black, Red Brown, Yellow	
기법:	울 번 아웃(Burn-out), 펠트 니들 펀치	

Table 3. Design reflecting figurative features of Tomlin's painting.

작품 2		
모티프	소재개발	패션디자인 작품
		
<p>Figure 46. Number 2, 1950.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2". (n.d.). <a href="http://www.wikipaintings.org">http://www.wikipaintings.org</a></p>		<p>Figure 47. Image II.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p>
<p>Figure 48. Design II.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p>		
구성:	롱코트	
소재:	울30%, 폴리에스터70%의 혼방소재	
색상:	Olive Green, Black, White, Red Brown, Ivory	
기법:	울 번 아웃(Burn-out), 펠트 니들 펀치	

Table 4. Design reflecting figurative features of Tomlin's painting.

작품 3		
모티프	소재개발	패션디자인 작품
		
<p>Figure 49. Number 1, 1952.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1". (n.d.). <a href="http://www.wikipaintings.org">http://www.wikipaintings.org</a></p>		<p>Figure 50. Image III.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p>
<p>Figure 51. Design III.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p>		
구성:	언밸런스 드레스	
소재:	울30%, 폴리에스터70%의 혼방소재	
색상:	Grey, Black, White, Pink, Parma Violet	
기법:	울 번 아웃(Burn-out), 펠트 니들 펀치	

Table 5. Design reflecting figurative features of Tomlin's painting.

작품 4		
모티프	소재개발	패션디자인 작품
 <p>Figure 52. Number 9, 1952. From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9" (n.d.). <a href="https://www.phillipscollection.org">https://www.phillipscollection.org</a></p>	 <p>Figure 53. Image IV.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p>	 <p>Figure 54. Design IV. Photographed by the author (July, 2022)</p>
구성:	롱 드레스	
소재:	울30%, 폴리에스터70%의 혼방소재	
색상:	Parma Violet, Violet, Lilas, Pink, Canary Yellow	
기법:	울 번 아웃(Burn-out), 펠트 니들 펀치	

해 옷의 윗부분에 포인트를 주었다. 회화의 모티프로 재구성된 흐름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오른쪽 실루엣은 드레이퍼리하게 표현하고, 왼쪽은 허리선을 적용하고 소매를 붙여 오른쪽과 대조적인 형태감이 나타나도록 언밸런스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원피스 드레스의 색상은 모티프가 된 회화에 사용된 컬러를 응용하였고, 펠트 사용으로 회화에 사용된 색상의 특징을 나타냈다(Figure 50). 즉 튜린 회화의 색면적 구성을 색다른 시도로 시각화 하여 패션에 표현하고자 했다(Figure 51).

브래들리 위커 톰린의 1952년 작품인 『Number 9』(Figure 52)에서 모티프를 응용하여 롱 드레스를 제작하였다(Table 5). 작품의 원단 소재로 울 30%, 폴리에스터 70%가 함유된 혼방 원단을 선택하였고, 디자인에 사용한 번 아웃은 모티프 형태를 반복적으로 중첩시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라지도록 구성하여 패터화 하였다(Figure 53). 또한 붓 터치

의 느낌이 부각될 수 있도록 펠트 니들 펀치를 이용해 의상 윗부분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세미 A라인의 롱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여 중량감이 느껴지는 드레스로 나타내고자 했다. 드레스의 색상은 모티프가 된 회화에 사용된 컬러를 사용하였고 회화에 사용되지 않은 색상을 사용하여 명도와 채도의 차이로 붓 터치의 조형성을 살리면서 기존의 회화와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였다(Figure 54).

#### IV. 결론 및 제언

패션은 감각적 요소가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즉, 패션이란 사회현상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따르는

행동양식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사회적 가치, 미적 가치, 기쁨, 감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패션은 인간의 심미적 변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조적이며 새롭고 다양한 발상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개발시켜 왔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의 일환으로 패션에 회화를 접목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패션을 창출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표현의 조형적인 특성과 표현 양식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이를 패션디자인의 모티프로 활용하고, 올 번 아웃 기법을 적용하여 작품 4점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회화 속 조형적 특성은 디자이너에게 창조적이고 다양한 상상이나 모순된 결합에 대한 구상 등 세련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훌륭한 모티프를 제공한다. 브래들리 워커 톰린 회화에 나타난 속도감 있는 선의 표현과 자유로우면서 균형 잡힌 붓 터치, 반복적인 색면 구성의 조형적인 특성을 응용함으로써 회화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붓 터치가 부여하는 우연의 미를 패션 작품에 표출할 수 있었다. 이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표현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독창적 디자인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표현 기법으로는 용해제를 묘염 기법으로 그려 탄화시키는 올 번 아웃 기법을 중심으로 니들 펠트 기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회화적인 붓 터치 느낌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패션 작품의 모티프는 속도감 있는 선의 표현과 자유로우면서 균형 잡힌 붓 터치, 반복적인 색면 구성의 조형적인 특성을 응용함으로써 회화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붓 터치가 부여하는 우연의 미를 패션 작품에 표출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브래들리 워커 톰린 회화에 표현된 다양한 선의 조형적 특성과 색면 활용으로 표현된 특징을 의상에 표현하기 위해 올 번 아웃

기법을 활용하여 패션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넓힐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추상 표현주의 기법이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한다.

본 연구는 올 번 아웃 기법에 집중하여 패션디자인을 전개한 한계점을 지니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추상표현주의의 모티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묘염을 활용한 식물성 번 아웃 기법, 가죽 염색 등 다양한 소재 표현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감각의 패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Alexander McQueen 2008 S/S.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8&collection=15909&image=2156398#.Y6L8L2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8&collection=15909&image=2156398#.Y6L8L2N_pD8)
- Alexander Wang 2018. (n.d.). *Pinterest*.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376191375099720412/>
- Anfam, D. (1990). *Abstract expressionism* (Vol. 130). London: Thames and Hudson.
- Belle. (2011, April 8). *Martine sitbon autumn/winter 1997/98. Cindy and Belle*.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cindyandbelle.blogspot.com/2011/04/blog-post.html>
- Bradley Walker Tomlin "Maneuver for Position".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Maneuver for Position, 1947 - Bradley Walker Tomlin - WikiArt.org](http://www.wikiart.org/en/Bradley-Walker-Tomlin/Maneuver-for-Position)
-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1".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bradley-walker-tomlin/number-1-1952>
-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15". (n.d.). *MOMA*.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283691>
-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2".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bradley-walker-tomlin/number-2-1950>
-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20". (n.d.). *MOMA*.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78634>
-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9". (n.d.). *Phillips collection*.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phillipscollection.org/collection/no-9>

- Bradley Walker Tomlin “Number 9: In Praise of Gertrude Stein”. (n.d.). MOMA.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79512>
- Breuer, M., Anderson, M., Hays, K. M., & Hays, M. (2000).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 Caldwell, J., Bolger, D., Roque, O. R., & Spassky, N. (1980). *American Paintings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Vol. 1).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 Cho, H.-H., Chung, M.-H., & Lee, J.-L. (2014). A study on the cellulose blend knit fabrics using burn-out printing convergence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6(4), 229-235.
- Christian Lacroix 2002 S/S.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8&collection=5651&image=816072#.Yu9sCWOZND8](https://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8&collection=5651&image=816072#.Yu9sCWOZND8)
- Comme des Garçons spring 2004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4-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4>
- Crum, K. B., Tomlin, B. W., & Porter, J. C. (1989). *Bradley Walker Tomlin 1899-1953: Paintings*. New York: Baruch College
- Dries Van Note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Men.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2&collection=24840&image=3439757#.Y6L2\\_G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2&collection=24840&image=3439757#.Y6L2_GN_pD8)
- Dries Van Noten 2008 F/W.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Dries Van Note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20&collection=17426&image=2367950#.Y6L6f2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20&collection=17426&image=2367950#.Y6L6f2N_pD8)
- Dolce & Gabbana.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collection=16535&image=2242076#.Y6L1dm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collection=16535&image=2242076#.Y6L1dmN_pD8)
- Fendi 2004 F/W. (n.d.). *Firstview*. Retrieved June,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1&collection=7774&image=1129660#.YvCt52OZN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1&collection=7774&image=1129660#.YvCt52OZND8).
- Franz Kline “New York”.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franz-kline/new-york-1953>
- Giles 2009 F/W.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92&collection=20754&image=2842212#.Y6L60m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92&collection=20754&image=2842212#.Y6L60mN_pD8)
- Harrison, C. (1981). Abstract expressionism. In Stangos, N. (Ed.), *Concepts of Modern Art* (pp. 169-211). London: Thames and Hudson.
- Helmut Lang 2020 F/W. (n.d.). *Pinterest*.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370139663098566901/>
- Jackson Pollock “Number 19”.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jackson-pollock/number-19-1948>
- Jackson Pollock “Number 8”.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jackson-pollock/number-8-detail>
- Jackson Pollock, Peinture (Argent sur noir, blanc, jaune et rouge). (n.d.). *Panorama de l'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panoramadelart.com/analyse/peinture-argent-sur-noir-blanc-jaune-et-rouge>
- Jean Paul Gaultier vintage 'pollock' bleached jacket. (n.d.). *Pinterest*.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520095456942555875/>
- Jung, O. G. (2010). *내 손으로 하는 천연 염색* [Natural dyeing by my hand]. Paju: Dulnyouk.
- Kim, H. J. (1999). A study on the burn-out printing of cellulose-blend velv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5), 757-763.
- Kim, J. H. (1998). A study on art wear ( I ): Focusing on clothing-sculp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8(-), 159-178.
- Kim, J. Y., & Cho, K. H. (2005). A study on the 3-D surface effects of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9(1), 1-20.
- Kim, J., & Choi, J. (2007). *고감성 텍스타일 표현 기법* [High sensitivity textile expression technique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S. Y. (2009). A study of abstract expressionist techniques in 21<sup>st</sup> centu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9), 1430-1440.
- Lee, S. C., & Yang, J. S. (1999). A study on various conditions for removal of burned rayon in burnout finishing on silk: Rayon mixed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5(1), 113-131.
- Lee, Y. Y. (2013). Study on fashion designs inspired by abstract expressionis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1), 374-386.
- Loewe 2000 F/W. (n.d.). *Vogue*. Retrieved June,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00-ready-to-wear/loewe/slideshow/collection?epik=dj0yJnU9SVFrUFJfUEo3V0UzT3RES2p3eTZ2bTVucTl0NVuanQmcD0wJm49NnRyalhYRHhWR1ZRSjZ2UU0xaVRXdyZ0PUFBQUFBRO9pLWFB#48>
- Mark Rothko “No. 14”.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mark-rothko/no-14-1960>
- Matthew Williamson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Women.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collection=20611&image=2817487#.Y6L87G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collection=20611&image=2817487#.Y6L87GN_pD8)
- Michael Kors 2002 S/S.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s.php?id=5767#.Yu99j2OZN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s.php?id=5767#.Yu99j2OZND8)
- Oh, G. S. (1991). *추상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abstract art]. Seoul: Iljisa.
- Oscar de la Renta 2018 S/S. (n.d.). *Oscar de la renta*. Retrieved July 1, 2022, from Oscar de la Renta. <https://www.oscardelarenta.com>

- ta.com/pages/runway-spring-2018
- Raf Simons - Ready-to-Wear - Runway Collection - Men.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8&collection=16722&image=2269124#.Y6L8mWN\\_p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8&collection=16722&image=2269124#.Y6L8mWN_pD8)
- Sam Francis “Foot Print”.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sam-francis/foot-print-1960>
- Sam Francis “Untitled”. (n.d.). *Wiki Art*.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wikiart.org/en/sam-francis/untitled-1958>
- Shim, H. J. (1996). *Applied abstract expressionism to costume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Shim, M. S., & Kim, B. H. (2004). *패션 염색 가공* [Fashion Dyeing and Finishing]. Seoul: kyohakyongusa.
- Song, B. S. (1996). *염색의 실재* [Substance of dyeing]. Seoul: Mijinsa.
- Tom Van Lingen spring/summer 2003.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0&collection=5554&image=802655#.Yu9x1mOZND8](https://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0&collection=5554&image=802655#.Yu9x1mOZND8)
- Topshop unique fall 2011. (2011, Feb 20). *Fashion Gone Rogue*.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www.fashiongonerogue.com/topshop-unique-fall-2011-london-fashion-week/5/>
- Valentino fall/winter 1997. (n.d.). *Firstview*. Retrieved July 1, 2022, from [https://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2&collection=6782&image=989820#.Yu0JFGOZND8](https://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2&collection=6782&image=989820#.Yu0JFGOZND8)
- Yotka, S. (2015, Nov 22). It’s Jackson Pollock’s World, We’re Just Living in It. *Vogue*.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www.vogue.com/article/jackson-pollock-painter-influence-fashion>
- Yun, S. A. (2004). *A study on fashion design by adapting mold of spider’s web: Focused on burn-out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미술대사전 [Art dictionary]. (1998). 타시슴 [Tachisme]. *Naver*. Retrieved June 1, 2022,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4314&cid=42635&categoryId=42635>

#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Based on Bradley Walker Tomlin's Abstract Painting**

## **- Focused on Burn-out Technique -**

**Park, Jihye<sup>†</sup> · Kim, Jung Hae**

Ph.D, University of Leeds<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motif for fashion design based on abstract painting and expand the realm of fashion design expression by examining and using a burn-out technique. For the methodology, examples of application of abstract expressionism and burn-out techniques found in fashion collections were examined along with review on literature, publications and precedent studies. Data were collected largely from websites specialized in fash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data available and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To look into burn-out processing, we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deciding a solvent, its formulation, concentration and carbonizing temperature. Felt needle punch was used in part to make color sense of paintings and brush work more natural. As a result, four designs with new textiles were produced.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fashion design, abstract expressionism can serve as a source of unique design to meet aesthetic sensation by expanding the realm of interaction in a new perspective. Second, technically, burn-out in which the solvent is carbonized with painted dyeing is able to express painterly brush works. Third, we employed wool burn-out and felt needle punch techniques as a way to reflect figurative features of Bradley Walker Tomlin's painting on clothing. Through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expression area of fashion design can be expanded.

Key words : abstract expression, burn-out technique, expression techniques for fashion